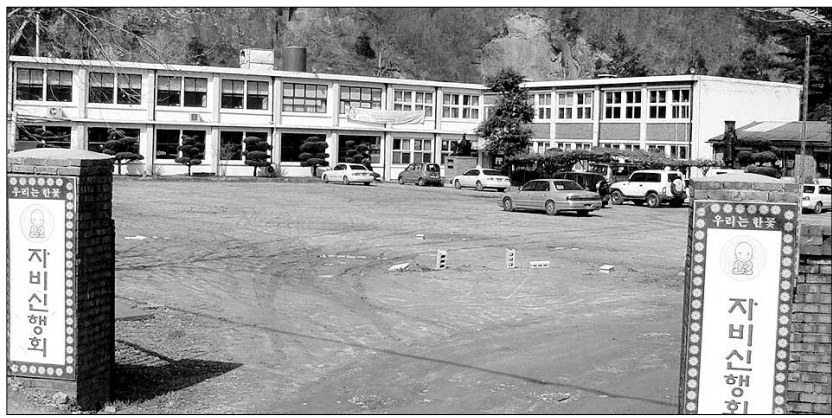


재가자 위한 화엄학림 개설



화엄학림 강의가 진행될 광주시 내남동 자비신행회 교육관.

실상사 화엄학림·자비신행회 공동운영 3월26일 개교, 불교 활동가 양성에 기대

승가와 재가가 함께 공부하며 자비실현 행을 펴는 교육기관이 탄생한다. 조계종 승가전문교육기관인 실상사 화엄학림과 재가봉사단체인 (사)자비신행회는 '재가 화엄학림(華嚴學林)'을 개설하고 오는 3월 26일 1기 입학식을 갖는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감 해강 스님은 지난 2월 17일 "재가봉사단체인 자비신행회가 불교자원봉사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을 요청해, 대증논의를 거쳐 재가 화엄학림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며 "화엄경을 근본으로

바람직한 불자상을 정립하고,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강 스님은 또 "그동안 실상사 화엄학림은 승가 지도자 양성에 주력해 재가와 함께 하는 공부나 포교경험이 부족하다"며 "재가 화엄학림을 통해 승가와 재가가 함께 호흡하며 실천하는 불교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 화엄학림은 기본교육으로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

불교개론, 중론, 금강경과 전문교육으로 유식개론, 대승경론, 수행론, 화엄사상사, 화엄현담, 법계도기(법성계), 화엄경 등의 과목이 2년 과정으로 설강되며, 24과목 총 45학점 가운데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하게 된다. 학기 중에는 화엄사찰을 찾아 교리를 체득하는 '찾아가는 화엄학림'과 분야별 특강, 수련회가 년 10여회 펼쳐진다. 교수진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재인 스님을 비롯해 도법, 해강, 각목, 자승 스님 등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진이 총출동한다. 강의는 광주 내남동 자비신행회 교육관에서 펼쳐지며, 자비신행회가 학사 운영을 맡는다. 재가 화엄학림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불교 활동가를 양성하고 조직해 실천하는 불교교육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상사 화엄학림(학장 재인)은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승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2년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올해 9기를 모집하고 있다. (사)자비신행회(이사장 현장은) 1999년 설립된 자비봉사 신행단체로 연인원 1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활동, 한빛 외국인 노동자센터 운영 등 광주 전지역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062)234-2733

이준엽 기자 mahae@buddhapia.com

해룡 작업전수원 개원



광주에 불교 영산재 전문교육도량인 해룡 작업전수원이 문을 열었다.

광주 해룡사(주지 해운)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해룡 작업전수원을 개원하고 제1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전수원장 해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호남지역에 불교의식을 보급하고, 후학들을 배출하고자 작업 전수원을 마련했다"며 "불교의식은 불교의 근간이자 세계적인 전통문화로 포교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룡 작업전수원은 1년 과정으로 범패, 작법 등 불교의식 전반에 관해 교육하며 강의는 도담 스님(중요 무형문화재 50호 범패 전수생)이 맡는다. (062)515-7749

이준엽 기자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보은 법주사(주지 도광) 성보박물관 건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월말 문화재청으로부터 성보박물관 설계비 예산 5000만원을 지원받은 법주사는 5월 이후 설계에 들어가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성보박물관 건립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2월 16일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85억원을 들여 법주사 내에 건립되는 성보박물관은 740여 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법주사와 법주사 말사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전시하게 된다.

법주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 중 하나로, 불교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명우 기자

"미륵세계사 복원"

충주시·문화재청 3월부터

신라말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최고의 미륵 성지였던 충주 월악산 미륵세계사(주지 덕관) 그 미륵세계사가 중흥불사를 통해 불교 성지로 되살아난다.

충주시와 문화재청은 중흥미륵세계사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3월부터 미륵리사지 석불입상과 석불 옆 석실에 대한 정밀실측 및 안전진단 등을 벌인 후 본격적인 복원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복원은 연차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올해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대웅전 복원과 요사채 건립이 추진된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안암산 개운사

교육·기도·포교 3색 갖췄다



입춘기도 회향으로 2월4일 열린 중진 스님 초청법회. 개운사는 매월 관음재일 고승초청법회를 열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전통 사찰 개운사. 무학대사가 창건한 개운사는 몇 년 전만 해도 중앙승가대학이 있었던 교육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중앙승가대가 김포로 옮겨가면서 개운사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2005년 2월...

언제든 일몰 뒤에 개운사에 가면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연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 1천일기도에 들어간 신도들이 밝혀놓은 1300개의 등불은 개운사가 더 이상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사찰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에 착수하는 등 개운사 재건에 나섰다. 그러나 관음재일날 20~30명에 불과했던 신도들이 지금은 200명을 넘어섰고, 매월 음력 7일 철야기도에는 150명이 참석할 정도가 됐다. 하지만 공운 스님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개운사의 올해 사업은 모두 일곱 가지. 3월1일부터 9일까지 전통법회와 포교 영산재의식을 결집을 밝히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 1천일기도에 들어간 신도들이 밝혀놓은 1300개의 등불은 개운사가 더 이상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사찰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 직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승법회·철야기도 등 신행프로그램 활발 7대 사업 추진 통해 조직 복원 심혈

그렇다. 불과 7개월 만에 개운사는 확 달라졌다. 절을 떠났던 신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젊은층 신도들도 늘어나고 있다. 운종일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찰 운영 체계도 확고히 자리잡았다. 현 주지 공운 스님이 오면서부터다.

공운 스님을 포함해 개운사 주지는 2년 새 5명이나 바뀌었다. 잦은 주지 교체는 지속적인 사찰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도 이탈 현상까지 초래했다. 공운 스님은 법랍 30년 가량 된 베테랑급 스님들을 스카우트(?)해 3직을 구성했다.

그리고 고승초청법회, 1천일기도, 철야기도 등의 신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도회·거사회·청년회 복원

조파일에 즈음한 지역 경묘산치, 노숙자 등 사회 빈곤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군·교도소 위문법회단 창립 등 대외적인 포교방안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사회와 대중에 대한 환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운 스님은 "누가 주지를 맡더라도 일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일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개운사는 중앙승가대를 지원 하는 교육도량이자, 관음기도도량으로서의 기존 이미지를 확고히 하면서 도심포교도량으로서의 새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02)926-4069

한명우 기자

효사랑 실천운동 적극 동참 광주 남구 불교사암협



광주 남구 불교사암협이회는 창립을 겸한 효사랑 실천다짐법회를 봉행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 실천 운동에 지역불교계가 적극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광주 남구 불교사암협(회장 도산)과 남구청 불자회(회장 오기주)는 2월 15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남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광주 남구청이 펼치는 효사랑 실천운동에 참여키로 했다. 이날 법회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해

항 스님, 승보회장 광민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상명 스님을 비롯한 지역사암 스님 50여명과 황일봉 남구청장, 서용 남구의 회 의장 등 지역기관장, 광주전남 포교사단 김인식 단장, 광주 윤불련 유영식 회장, 서부경찰서 불자회 김장배 회장 등 신행단체장, 재가불자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남구 불교사암협 회장 도산 스님은 "새해 들어 포교와 지역발전을 위해 남구지역 사찰들이 모여 연합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오늘 불교 협의회 창립을 알리고 만행의 근본인 효사랑 실천 운동에 불자들이 앞장 설 것을 다짐하기위해 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일봉 남구청장도 축사에서 "불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부모은중경의 가르침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은 그대로가 보살행으로 효사랑 실천운동에 불자들의 적극 동참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남구 불교 사암협은 황일봉 남구청장에게 '효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남구청이 추진하는 효사랑 실천 운동의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 앞서 남구지역 관내 사암 주지스님들은 남구 불교사암협(회장)을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도산 스님(대각사 주지)을 선출했다. 남구 관내에는 30여개의 사찰이 있으며 불교협의회를 중심으로 복지관련 포교와 사찰환경과 등의 당면문제에 대해 나잡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우리들의 친구 룸비니 동산

룸비니 동산은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마음을 쉼쉼 자라나게 하는 이야기들을
자용스님께서 들려주시니까요.

룸비니 동산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 45분, 룸비니 동산에서 만나요!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대구 94.5 Mhz / 광주 89.7 Mhz / 경주 96.7 Mhz / 순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

